

장흥에 대규모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추진

현대산업개발 장평·장동면 일대 6만평

주민 설명회 개최 후 타당성 조사 벌여

장흥에 대규모 천연가스발전소의 설치가 추진중인 가운데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는 장흥과 고흥이 천연가스발전소 예정부지로서 선정된 바 있으며 두 곳 모두를 대상으로, 업체가 타당성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은 27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1일 장흥군 장평면과 장동면 일원 6만평 부지를 상대로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위한 현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현재 고흥과 함께 장흥·장평·장동면을 예상부지로 해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타당

성보다는 주민 동의가 최우선 조건이어서 업체 측은 추후 주민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다음달 12일 이미 천연가스발전소가 가동중인 전북 군산과 익산에 주민들을 견학 보낼 방침이다.

설명회 이후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던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한 주민은 “발전소라는 이름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설명회 내용을 꼼꼼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염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에 안심했다”고 말했다.

모두 2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천연가스발전소는 군이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동의 의향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5년 말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2016년 9월에 착공, 2019년에 준공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천연가스발전소는 하루 6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루 1840MW의

발전설비용량에 상주 고용인원만도 250명에 달한다.

또 발전소 주변 지원금(정부 출연금)이 30년간 기본 지원금 매년 10억원과 3년간 특별 지원금 3년간 350억원 등이 지원되며 연간 도·군세가 110억원이 투입된다.

천연가스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운수 배출물이 적고 환경오염이 없어 현재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되고 있으며 전국에 17곳이 가동 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이주여성 농업교육 수료 영광농협(조합장 박준화)에서 최근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을 받은 지역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이 수료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농협은 이번 교육 수료생 21명을 대상으로 전문 작목반 및 선도 농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나주시 ‘제안 활성화 평가’ 우수

안행부장관 표창 수상

나주시는 27일 “2013년도 제안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안행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제안 활성화 평가는 안전행정부가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민·공무원 제안 접수비율, 제안 채택률, 제안 실행률, 제안 활성화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민간 심사위원들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나주시는 2010년 시정연구모임인 ‘뜻세움’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정연구모임 제도 활성화, 제안 접수방법 및 채널의 다양화, 정부3.0 국정과제와 연계한 공모제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명수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제안 활성화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해 제안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기관 표창과 유공자 표창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달에 있을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고교생이 폐지 팔아 불우이웃에 연탄 배달

목포 흥일고 1학년생에 버려진 캔을 주우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오염해 교사를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와 매점 등에 버려진 캔들을 틈틈이 모아왔다.

‘모아 드림’이라는 동아리까지 만든 학생들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폐품 모으기에 나섰다. 앞으로도 불우이웃과 함께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길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폐품을 모은 돈으로 연탄까지 직접 배달해 주어 그 무엇보다 더 고맙다”고 칭찬했다.

오염해 교사는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며 살라는 선인들의 가르침에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 남을 돕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진도,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구 광석초교에 117대 갖춰

진도군 농민들이 과거에 비해 편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임회·지산면 등 서부권 지역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5억원 등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다음달 중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운영한다.

현재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 76종 15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가 수는 지난 2011년 778농가, 2012년 808농가, 2013년 11월 현

재 776농가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한 진도읍에서 먼 지역의 농업인들의 경우 이용에 상대적으로 불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구 광석초등학교에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격납고, 정비실과 함께 59종 117대의 농기계를 갖춘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다음달 준공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면 원거리 농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다”며 “특히 작기 영농은 물론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작황 부진 김 양식장 현장 지도

관리요령·생육관리 나서

해남군이 높은 수온에 의해 김 작황이 부진하자 양식 어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방문지도에 나서고 있다.

군은 27일 “지난 26일부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해남센터와 함께 김양식 어장을 방문해 어업인들에게 김 양식장 관리요령 및 김 생육관리 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김 채묘시기인 9~10월 수온 정체와 영양염류 부족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김이 생리적으로 약해지면서 업체 탈락 및 성장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30% 이상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달 하순부터 수온 하강속도가 빨라지면서 김 생산작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

인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해 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김 우량종묘(폐각사상체), 김 육상채묘, 김 냉동망, 김양식 로프사업으로 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기 김생산 작황 부진으로 양식어민들의 고충이 크지만 다음달부터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어까지 김 작황 및 갯벌대비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나주시, 호국영웅기장 전수식

나주시는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호국영웅기장 전수식을 가졌다.

나주시는 27일 “지난 26일 보훈회관에서 임성훈 나주시장이 관내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496명 중 지역별 대표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유공자에게 기장 및 기장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국영웅기장은 일종의 기념장으로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형태로 제작했다.

기장에는 한반도 지도 위에 ‘정전 6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지도 둘레에는 ‘호국’, ‘자유’, ‘평화’, ‘영웅’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이날 임성훈 시장은 축하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에게 시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6·25전쟁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물론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시켜 보다 밝은 미래 백년으로 도약해 나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25참전유공자회 나주시지회 박장주 회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여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 새 얼굴

“예산 심의 투명·공정성 확보”

이 중 운 영광군의회 예결위원장

“예산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대 영광군의회 마지막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종운위원은 “지역경제의 여건을 감안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회계 시책예산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지역개발과 서민복지증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선 5기에 마무리해야 할 역점사업 및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결위원은 다음달 2일부터 3일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이 위원장은 제2·5대 영광군의회의원, 제6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 광주일보 기자 등을 역임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림)의 이호영 대표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13</p> <p>IPTV 18</p>	<p>채널A</p> <p>www.ichannel.a.com</p>
--	---	--	--	---	---